(주)엔파인 일러스트레이터 송지선씨

이미지 제공 전문업체인 (주)엔파인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송지선(25)씨의 업무 만족도는 그야말로 100%.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었던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송씨는 얼마간의 프리랜서 생활이후 지금의 (주)엔파인에 입사했다.

"어려서부터 찰흙으로 무얼 만든다든지 오밀조밀한 작업을 좋아했어요. 결국 시각 디자인을 선택했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100%라는 송씨의 직업 만족도는 여성에게 작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 때문이다. 같은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하더라도 만화 쪽은 취업난이 심각한 반면 일러스트 쪽은 취업과정과 회사 생활에 있어 양성(兩性)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결혼 이후라도 재택 근무가 가능해 육아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게 양씨의 설명이다.

굳이 송씨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러스트 분야에서는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엔파인의 경우도 일러스트 작업은 송씨와 비슷한 조건 즉 디자인을 전공한 20대 중반의 여성들 차지였다.

송씨가 주로 다루는 주제는 동화 삽화 내지는 팬시 등 오밀조밀한 것들이다.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자동차, 비행기 등 웅장한 스케일의 작업을 선택했을 거란다.

25살 나이. 도전해 본 일 보다 도전해 보지 않을 일, 도전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송씨는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더라도 일러스트 일을 꾸준히 하고 싶어했다.

단 결혼 후에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되도록 늦추고 싶어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여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지 않겠지만, 사회의 일상은 아직까지 결혼이 여성에게 하나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씨가 하고싶은 일을 잘 이해해 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남자라면 결혼에 대한 송씨의 입장은 언제든 바뀔 것 같다.

〈이용우기자〉

"일러스트레이터라서 행복해요"